

德遊藝園情思和怡
披函剔秘精氣益新

中央博物館長 亨谷先生 六一書

丙辰和春 東香 潤 泰 植 和 頌





崔淳雨先生近影

先生은 一九一六年 四月 二十七日 父親 崔鐘聲氏와 母親 梁順蟾女史의 五男으로 開城에서 出生하시었다. 開城 松都高等普通學校에서 修學하신 先生은 일찍부터 남달리 뛰어난 文才를 발휘하여 少年時節에는 文學으로 立身할 뜻을 세웠으나 青年으로 成長하면서 當時 開城府立博物館장이시던 又玄 高裕燮先生의 感化로 韓國美術史 研究에 뜻을 세우시게 되었다. 解放後 國立開城博物館參事를 거쳐 一九四八年 서울의 國立博物館으로 轉勤하신 以來로 國立博物館 美術課長, 首席學藝研究官, 學藝研究室長을 歷任하시였으며 一九七四年 六月 十八日 國立中央博物館長에 就任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三十年間의 國立中央博物館 奉職은 한가닥 더러만큼의 私心이 없는 오직 博物館을 내뭇 내집같이 아끼고 사랑한 정성으로 점철된 결과한 생활이었으므로 박물관의 모든 유물, 자라온 역사, 博物館의 크고 작은 일, 博物館의 창고 구석에서 전시실, 진열장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으며 先生의 정성의 손길이 아니 닿은 곳이 없다.

六·二五 사변중에는 所藏 文化財 소개사업에 헌신 하시어 최후의 文化財 소개시는 포격이 지치지간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상태에서 생명을 내걸고 이 사업을 완수하시였다. 이후에 서울 환도에 따른 혼란중 박물관이 경복궁에서 南山으로 다시 덕수궁으로 다시 경복궁으로 이전하면서 수만점의 유물을 정리하고 운반하고 전시하면서 오늘의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바친 혼신의 정성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박물관을 지키고 키우시면서 한편 韓國美術史의 기틀을 세우시기에 진력하시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陶窯址發掘 사업을 추진하여 벌써 십여년에 이르렀으며 高麗靑磁瓦의 研究등 수십편의 우리나라 陶磁器와 木漆工藝관계 논문과 韓國工藝史를 집필하시였으며 檀園 金弘道の 在世年代放等 韓國繪畫史를 밝혀 나가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시였으며 韓國의 佛敎繪畫, 李朝水墨畫, 東洋陶磁大觀(韓國篇) 韓國美術全集中에서 高麗磁器, 繪畫, 木漆工藝篇등을 펴내시였다.

先生은 六〇年을 韓國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보내시였다. 선취적인 심미안과 감식안위에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을 지키고 찾아내어 몸소 그 속에서 생활하시고 이를 널리 알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 오는데 큰 등불이 되시어 조형미술에 나타난 韓國美의 啓發에 관한 에세이와 논고가 수백편에 달한다. 또한 박물관에서 학교강당에서 강연회에서 많은 사람과의 교류에서 이를 꾸준하고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계실뿐 아니라 우리옛것을 현대에 살리고 현대미술의 참된 밑바탕이 되게 하는등 현대미술의 향방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시였으며 조심스런 참여를 아끼지 않으시였다. 一九四五年부터 五年間 文學 同人誌「純粹」의 主幹 구실도 맡으신 바 있는 선생의 글은 주옥같이 아름답고 이슬같이 영동하여 한국의 멋과 정서와 구수함과 혼연함이 철철 넘치는 적절한 날말과 흐르듯 부드럽고 독특한 文體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펴나가시였다. 이러한 선생의 재능과 노력은 우리나라 수필문학에도 크게 기여하시

어 우리 미술문화와 문학에 조금이라도 뜻을 둔 사람이면 선생의 말이 항상 애뜻이 마음 어느곳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었다.

결국 담박하게 생활하시는 선생은 깨끗하고 품위있게 老年을 보내시는 선비의 모습이나 옛선비의 풍모를 찬탄하여마지 않으셨다. 『그 어르신은 학같이 함으셨군 함어서는 학같이 고결한 모습이여야지』하신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금년 봄에 궁정동 한옥고가에서 다시 성복동 한옥고가로 이사 하시었다. 대지가 좁 넓어 뒷뜰을 취하시어 다 쓸어져가는 고가를 사신 것이었다. 이 사하신 때가 바로 한 국미술 五천년전의 출품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였다. 언제 집을 고치고 정원을 가꾸실 시간이 없다. 回甲日도 外地인 日本에서 그대로 넘기시었다. 초가을로 접어들어 이제야 틈틈히 손을 보고 가꾸신 보람이 생겨 잊그제 잠시 둘러보니 한점 속기가 없는 조촐하고 청초한감이 가슴속을 타트이게 해주는 것 같다. 先生은 陽川崔氏의 逍遙公派로 家族으로는 夫人 朴金蟾女史와 舍愛 樹貞孀이 있다. 先生의 생활신조를 오늘까지 지켜나가지게 뒤에서 큰힘이 되신분이 바로 夫人 朴女史이시다.

先生이 그간에 걸어오신중에 外國巡遊와 敎職, 公職을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一九五七—一九五八年 美國

一九六〇—一九六二年 歐羅巴各國

敎職

好壽敎女子高等學校 講師

梨花女子大學校 講師

弘益大學校 講師

東國大學校 講師

慶熙大學校 講師

高麗大學校 講師

서울大學校 講師

公職

文化財委員會委員(第一分科) 一九六七年부터 현재

金煥基等 畫壇重鎮들이 發起한 韓國美術評論人會代表 一九六二、一〇—一九六五、一〇

韓國美術評論家協會代表 一九六五、十二—一九六六、十二

韓國美術史學會代表委員 一九七六?